

SR표준화포럼 출범



IS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26000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고, 국내 확산을 위하여 SR 표준화 포럼이 출범되었다.

○일시 : 2005년6월3일(금) 14:00 ~ 17:00

○장소 : 기술표준원 중강당

○포럼 참여 각계 대표

- 정부(산업자원부 이희범장관), 경제단체(무역협회 김재철회장), 산업(유한킴벌리 문국현사장), 노동(빈노총 이수호위원장), 소비자(소시모 김재옥회장), 언론(한국경제신문사 신상민사장), 학계(서울대 조동성교수), 환경(환경정의 김일중대표)

○포럼 회원 : 120개 기관의 윤리담당 임원
 공공부분(13), 산업계(38), 금융계(8), 시민·사회단체(14), 대학(14), 컨설팅사(33)

○창립행사

- 창립총회 : 포럼공동서명, 기초연설(ISO), 각계 환영사

- 국제세미나 : 시민단체 등 각계 대응, ISO 및 일본 동향

신성장동력 산업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 공표

- 10대 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 전략 포럼 (6.27) 개최 -

□ 기술표준원은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의 사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역할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의 이정표로 제시될 “신성장동력 산업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을 마련·공표하였다.

○한국표준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신성장 산업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8개유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관련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마련된 이번로드맵에는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중점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국제표준 획득에 필요한 추진방안, 기술개발 사업단과의 연계 전략 등이 담겨져 있다.

□ 기술표준원은 2003년말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반한 “Action Plan”으로서 이번 국제표준화 로드맵이 마련되어, 초기 발전단계인 성장동력산업의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산학연관 협력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SO, IEC 등 관련 국제표준에 신성장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우리 기술 300건을 반영, 총 1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간추진조직 구축, 기술개발, 특허, 표준화 연계, 국제표준 작성, 제안활동 지원, 세계표준지향 국가표준제정 등의 전략적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10대 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는 △ IT 신도산업 표준화 △ 디지털기반산업 표준화 △ 미래성장산업 표준화의 3개 표준화 분야가 나누어져 산업별 특성에 따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전망이다.

- 11 한편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를 비롯하여 10대 신성장동력산업 국제표준화기반구축을 추진중인 민간 8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7일(월) 코엑스에서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0대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산업별 국제표준화 로드맵,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산업계에 공표하였다.

불법 공산품 · 전기용품 일제 단속

하절기 안전사고 발생대비 불법 제품 일제 단속 · 제도 실시

- 기술표준원, 지자체 전국 합동 단속 -

-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6월 13일부터 4일간 전국적으로 불법 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 ※ 단속 : 기술표준원,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하절기에 수요가 많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놀이 용품, 어린이 놀이 제품 및 냉방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및 보우트, 스포츠용 구명복, 가스 라이너 등 여름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 킥보드, 작동원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 안전위해의 우려가 높은 제품

- 전기냉방기(에어콘), 선풍기, 전기방수기, 공기청정기, 송풍기 등 전기적 안전위해의 우려가 높은 제품

- 12 기술표준원은 이번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결과에 따라 법을 위반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불법공산품은 판매금지, 수거 또는 파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39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서 안전검사 표시인 「검」마크가 붙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 감전, 화재위험, 인체의 부상 또는 전과상해 등의 위험성이 높은 216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표시인 「K」마크가 없이 유통되는 제품(근거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13 이와 함께 판매업체에 대해서 불법공산품을 식별하는 방법과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불법제품의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나

※ 참고 : 의문사항, 신고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의 연락처

- 공산품 :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02-509 7247, FAX 02 509 7224)
- 신기용품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2 509-7237, FAX 507-6657)

「2005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식」 개최



- 기술표준원은 우수한 환경경영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유공자를 치하하고 산업계의 환경친화경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식」을 이회법 산업자원부장관, 박철호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0일(금) 14시에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행사개요]

- 주최 : 산업자원부(주관 : 기술표준원)
- 행사주요내용
 - 환경경영축진대회 : 우수 사례 발표(상징전사(주))
 -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식 : 기업체, 단체 및 제품상 17개, 유공자포상 18명

<주요포상대상>

- 대통령상 : 삼성전자(주)(종합대상부문)

- 국무총리상 : 금호산업(주)건설사업부(전문대상부문), 송과구경(지속가능발전상부문)
- 대통령포상 : 샘표식품(주) 대표이사 박진선,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임성준
- 국무총리포상 : (주)한솔홈데코 공장장 이응천 등 4명

콘크리트 분야 최우수 기술인 선정

- 2005년도 콘크리트 기술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

- 기술표준원은 콘크리트 관련 기술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기술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동대회 2회째를 맞아 대회 입상자 16개팀(일반부 10, 학생부 6)과 기술유공자 11명을 선정, 6월 14일(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 개요>

- 일시 : 2005. 6. 14(화) 15:30 ~ 16:10
- 장소 : 기술표준원 중강당
- 기술경연 내용 : 109개팀(일반부 74, 학생부 35)이 참가하여 콘크리트 배합실제능력과 공기량·슬럼프·강도 등에 대한 현장기술 경연
- 수상자
 - 대회입상자 : (주)모헨즈 천안공장, 한밭대학교 등 16개팀
 - 기술유공자 : 쌍용양회공업(주) 정용환 이사 등 11명
- ※ 시상식 개최전 (14:00 ~ 15:00)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기동"에 대한 기술세미나 개최

|| 금년도 기술경연대회 주요 특징은

- 최고 기술유공자로 선정된 성용환 이사의 경우 28년간 신기술개발에 노력(신기술, 특허 보유 10건)해 오면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전과를 위해 헌신해온 점을 평가하여 국무총리포장을 수여하게 되었다는 것과
- 따로 따로 개최되었던 일반부(제2회)와 학생부(제12회) 대회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산학연이 함께 모이게 되어 콘크리트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전과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콘크리트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포상 훈격을 상향, 확대하여 본 대회가 콘크리트산업 발전에 팔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제품 안전인증 국제총회』국내 최초로 한국유치

11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제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

제전기제품인증위원회 (IECEE/CMC) 총회가 국내 최초로 2008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전기제품 안전기준의 국제적 통일방안 논의 등 전기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위원회 (IECEE/CMC)는 세계 각국에서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를 회원국 상호간에 서로 인정함으로써,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국의 인증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4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 11 기술표준원은 지난 6.29~30일간 중국 상해에서 세계 2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8차 총회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하여 2008년도 제11차 총회의 한국유치 성과와 함께, 동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국제포럼”을 동시에 개최기로 하였다.
- 상기 “국제포럼”에서는 전기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의 국제적 통일방안, 각국별 전기제품 안전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한 최신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수준기업들이 해외수출시 당면하고 있는 기술장벽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기술표준원은 금번 『전기제품 안전관리 국제총회』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국내 전기용품 안전관리체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간 MOU 체결 지원, FTA 체결시 전기용품 분야에서의 양자간 상호인성(MRA) 추진 등 국제협력활동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SO TC 8/SC1 국제표준총회 개최(부산)

- 우리나라가 제안한 여객선 의자 난연기준 국제표준 논의 개시 -



|| 해양 스포츠와 크루즈 여행 인구의 증가로 선박 탑승객의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박의 인명구조 및 화재예방 분과 위원회(ISO TC 8/ SC 1 Lifesaving and Fire Protection) 표준 총회가 부산에서 6. 13에서 6. 15까지 개최되었다.

○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여객선 의자의 난연기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 총회에서는 여객선의 의자의 난연기준 외에도 선박용 화재감지장치, 선상표지판의 위치 및 활용 등 인명구조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국제표준이 집중 논의되었다.

○ 여객선의 의자의 난연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되어 철도객차 난연 의자로 실용화된 제품을 여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박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난연의자에 대

한 시험방법을 제안한 것임

○ 여객선의 의자의 난연기준의 주요 평가 지표는 표면 화염 진과속도, 인기의 양과 유독성 및 재료의 산소지수 등임.

□ 우리나라가 선박 건조량 1위국으로서 고부가가치 여객선 수주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10여개 나라의 조선 설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화재예방 분과 위원회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여객선 건조시 안전표준 활용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4년 10만톤급 기준으로 선박 수주가를 비교하면 유조선은 110백만 달러, LNG선은 185백만 달러 여객선은 450백만 달러 임. (한국 조선 공업 협회,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2005. 4)

|| 기술표준원은 부산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여객선 국제안전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작업반 구성운영 등 인·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자동차산업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 최근 EU환경규제 동향 및 유해물질 분석기술 등 -

□ 기술표준원은 EU가 시행중인 자동차폐차처리 지침(ELV, Directive 2000/53/EC)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각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 대응전략, 최신분석기술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를 6월 29일 동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EU가 '03년 7월부터 시행한 자동차폐차처리 지침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등 4대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규제는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 ※ 국내자동차 관련산업체 현황 : 완성차 4업체 및 자동차 부품·소재 5000여업체
- ※ EU지역 '04년 수출현황 : \$73.6억(자동차 \$65.7억, 부품류 \$7.9억)

□ 동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분야 산·학·연 관련전문가를 모시고 '국제환경규제 최신동향(리차드컨설팅 이광원 이사)' '현대자동차의 대응 사례(현대자동차 흥준회 부장)' '산업자원부의 대응 정책(산업자원부 박정미 사부관)' '유해물질 대체기술(LG전자 최광림 부장)' '국내외 자동차업체 대응전략(GM대우 남호 부장)' 'EU규제 유해물질 분석방법 및 국제기준화 동향(기술표준원 이현자 연구관)' 등 8개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유해물질 분석방법 개발 및 산업체 기술자 분석교육 등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 정

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관련 산업계에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 신소재코팅 기술표준 우리나라가 주도

- ISO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국내에서 2번째로 탄생 -

□ 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부품·소재분야에 응용되는 코팅기술의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ISO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의 간사국을 우리나라에서 맡게 되어 세계 신소재 코팅 분야의 국제표준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특히 ISO의 188개 TC 간사국 중 2번째로 맡게 되는 이번 TC107 간사국 수임은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나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그 값어치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 ISO/TC 107 간사국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의 제정을 기획, 관리하고, 산하에 6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SC : Sub Committee)의 직부를 조정하는 등 국제표준 제정을 사실상 주도하게 될 것이다.

※ ISO/TC107 전담분야 : 자동차용 강판 및 강관, 밸브, 발전용 터빈, 선박 및 항공의 표면강화 등 기간산업 뿐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박막등 신성장 분야 표준화 포함

- 회원국 : 48개국(P 회원 19개국, O 회원 29개국)
- 간사 : 선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수완 교수

유체기계 최신기술 및 표준화동향 세미나

- 에너지효율 5~10% 향상 고효율 승중기 설계 기술 전파 -



□ 기술표준원은 종전력량의 20%를 소비하는 유체기계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고효율 설계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무급유방식 최신기술 동향을 관련업계에 전파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유체기계 최신기술 및 표준화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일시 : 2005. 6. 23 (목) 13:30 ~ 18:00
- 장소 : 한국국제전시장(KINTEX)
2005 국제기계부품소재산업 전시회 기간 (6.21 ~ 6.24) 중 유체기계 최신기술 및 표준화 동향 세미나 개최

○ 참석대상 : 유체기계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 유체기계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추구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제어, 펌프장의 소음진동 감소방안, 3차원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최적설계기술 등에 대한 최신기술정보를 소개한다.

- 아파트 및 대형빌딩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부스터펌프 시스템의 최신제어방식인 IT기술을 접목한 인터넷 활용 원격제어기술에 대한 정보

- 대형 펌프장의 운전신뢰성 및 펌프흡입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 흡수정 기술기준에 대한 국내외 표준현황과 흡수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

- 산업용교반기 내부 유체흐름에 대한 정량적인 유동특성 데이터를 얻기 위해 임펠러 크기와 각도에 따른 유체의 속도, 와류 등 3차원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최적설계기술 제시

□ 동 세미나를 통하여 유체기계분야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학계, 연구소 및 정부와 신기술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류가 기대된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유체기계분야 관련업계 및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내 유체기계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